

10 오피니언

사설

엄격한 학점제도, 개선 여지 있다

취업은 대학가의 오랜 이슈 중 하나다.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는 청년 구직난 속에서 학생들은 하나라도 더 나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펙에서 기본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학점’이다. 인턴과 대외활동은 고사하고, 집안의 경제력, 부모의 직업까지 스펙이 돼 버린 사회에서 좋은 학점은 본인의 순수한 노력에 따라 온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수가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생이 ‘복잡한’ 스펙을 요구하는 취업시장이 아닌 비교적 ‘명쾌한’ 학점으로 경쟁할 수 있는 로스쿨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청년들이 스펙에 대한 부담과 불공정함을 이유로, 그들의 노력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학교의 ‘학점제도’는 학생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대학 비제로를 폐지, GPA 백분위 환산식 개선 등 최근 우리학교의 주요 뉴스에서 학점제도는 단연 눈에 띈다. B+ 이상 누적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학점표준화 제도’에 대한 학생사회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것도 같은 흐름이다.

서울캠 총학 봉건우 회장은 지난달 22일 있었던 소통간담회에서 “학점표준화 제도로 타 대학 대비 학점 취득에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본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실제로 타 대학 대비 B+ 이내의 누적 비율은 많게는 20% 이상 적었으며 상대평가가 진행됐던 2019년 1학기 기준 우리학교 학생들의 전공성적 B+ 이상 누적 비율은 45.6%로 전국대학 중 최하위였다. 학점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엄격한 학점제도’는 또 다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우리학교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마이크로디그리, 융합전공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생사회의 의견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관심 역시 애초의 기대치에 못미친다.

학생의 입장에서 익숙한 교육과정을 넘어 새로운 학사제도에 도전하는 것은 일단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학점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줄 세우기식 학점제도’라는 벽 앞에 융복합 교육 등 새로운 교육과정은 결국 ‘위험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하지만 대학사회에서 교육은 더 좋은 학점을 받

기 위한,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있다.

엄격한 학점 제도의 개선은 교육의 본질을 일깨울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현재의 학사제도 틀에서는 사회 흐름에 대응할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험한 시도’라고 인식했다. 결국,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게 만드는 현재의 학점제도는 달라진 교육과정, 학생들의 사회진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서라도 현재 학점제도의 틀은 재구성을 통해 보다 나은 모습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본부가 학점제도 개선을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가능케 할 더 나은 제도를 기대한다.

세시봉

태풍의 잔해



박소는 기자
unaos@khu.ac.kr

모두가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로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시대다. 그러나 일부 생산자의 의식 수준은 역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도덕과 상식의 선을 넘어선 콘텐츠가 늘어나는 요즘, 주어진 자유에 부여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에 관해 성찰과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긴 잔해가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 5일 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방파제에서 한 유튜버가 태풍 상황을 인터넷 생중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송 속에는 방파제를 넘어 덮쳐 온 파도에 유튜버가 10m 가량 밀려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같은 날 부산에서 4명의 인터넷방송 BJ도 태풍 생중계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파도가 치솟는 바다를 가리키며 “여기서 수영하면 1억을 주겠다”는 무모한 제안을 하거나, 강풍 속에서 컵라면 먹방을 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외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여론의 지적에는 “기자는 되고 유튜버는 안 되는 거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태풍은 콘텐츠 소재일 뿐이었다.

다음날 포항에서는 지하 주차장 침수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덮쳐오는 물살에 누군가는 ‘구독과 좋아요’를 외쳤고, 누군가는 예고 없이 목숨을 잃었다. “이 숫자들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의 슬픔과 회한이 담겼습니다” 지난 4일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이 과거 태풍 피해 통계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또다시 찾아온 슬픔과 회한. 그러나 그 속에는 다수의 이기심과 놓아버린 경각심도 함께 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재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익 도모를 위한 콘텐츠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모순이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에게도 위협을 줬으며 안타까운 생명과 그 가족, 그리고 사회에 악영향을 가했다. 도덕적 선을 넘어 나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면 멈추는 것. 힌남노의 잔해가 다른 형태로 재발하지 않도록 미디어 생산자로서 이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학생식당 상생으로 복지 선순환 가능

벼랑 끝 학식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청년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 개강 이후 매일 점심을 사 먹어야 하는 대학생들은 최근 ‘런치플레이션’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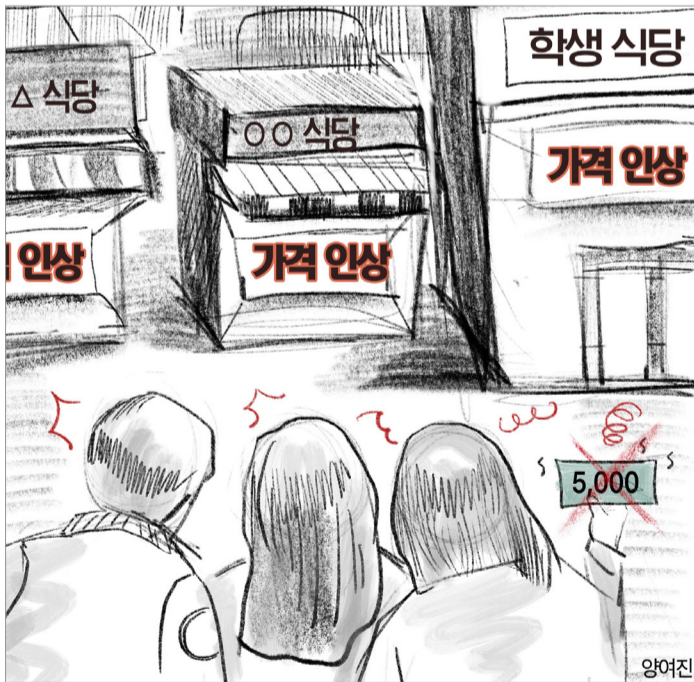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은 점심(런치)과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합한 신조어다. 대학가 식당은 물론이고 최후의 보루였던 학생식당마저 음식 가격을 줄 인상하면서 대학생들은 “이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6.3%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IMF)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월간 최고 수치다. 더욱이 지난 8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8.8%로 1992년 10월(8.8%)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물가에 대학가 식당과 전국 학생식당은 식자재비 상승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주머니 얇은 대학생들은 몇백원 차이에도 울고 웃는다. 이들이 마음 놓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는 없을까. 이 문제는 결국 학생과 학생식당의 상생으로 해결돼야 한다.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학내 복지이며, 수익은 학생들의 복지환경 개선이나 장학금 지급에 쓰인다. 그 수익의 원천인 학생들이 학생식당을 찾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식당은 청년들이 부담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안식처’로 자리잡아야 한다. 또 학식은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평 런치플레이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2-961-0093~5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